

# 동서양 초기 시론 비교 연구

— 중국의 『모시·서』와 서양의 플라톤·아리스토텔레스의  
시론을 중심으로 —

손현·김지영\*

## <目 次>

1. 서론
2. 동서양의 초기 시론 텍스트에 대하여
3. 동서양 시론 비교
  - 1) 발생론
  - 2) 효용론
  - 3) 창작론
4. 결론

## 1. 서론

우리말의 ‘시(詩)’는 중국 한자어에 기원을 두고 있거니와 근대 이후로는 서양 문화권의 영어 ‘poetry’의 번역어로 사용되고 있다. 오늘날 ‘시’와 ‘poetry’는 별 이견 없이 동의어로 여겨진다. 그와 더불어 오늘날 시는 인류보편적 문화 현상으로 간주되기도 한다.<sup>1)</sup> 어느 문화권을 살펴보아도 ‘시’라고 불릴만한 유산을 가지지

\* 손현: 성결대학교, 파이테이아학부(영문학전공), 조교수(제1저자)

김지영: 성결대학교, 파이테이아학부(중문학전공), 조교수(교신저자)

1) ‘詩’와 ‘poetry’를 어원적으로만 살펴보아도 오늘날 동의어로 여겨지는 두 용어가 사실상 상당한 문화적 차이를 내포하고 있음을 발견한다. 한자어 ‘詩’는 ‘노래에 붙인 가사’라는 의미로 영어로 번역하자면 lyric 에 해당한다. lyric은 영어에서는 ‘노래 가사’라는 뜻 이외에 ‘서정시’라는 뜻을 갖는데, 이는 lyric이 수금(lyre)에 맞추어 부른 노래라는 뜻에서 유래한 용어이기 때문이다. ‘詩’를 ‘lyric’으로 번역할 때는 이런 이중의 의미를 고려하여야 하는 셈이

않은 경우가 없고 오늘날 시가 없는 국가나 문화는 없다. 즉 문학 혹은 시는 개인 혹은 지역 간의 차이를 넘어 세계 보편적인 가치와 이념을 추구하는 활동으로 여겨지고 있다.

본고는 시의 보편성을 인정하면서도 시에 대한 이해는 지역별 혹은 문화권별 차이에 대한 이해를 통해 보다 깊어질 수 있다는 전제하에, 중국 한자어 중심의 동양 문화권과 영어 중심의 서양 문화권의 시 문화를 초기 시론을 중심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한자어와 영어는 세계문학의 대표 언어라 할 수 있고 그들 언어를 각각 동양 문화권과 서양 문화권으로 분류할 수 있다면 각 문화권의 시는 초기 시론에서 가장 고유한 특징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초기 시론은 자기만의 방식에 보다 충실한 형태로 발전한 시문화의 양상을 보여줄 것이기 때문이다. 본고는 차이에 대한 이해가 병행할 때 보편성 또한 보다 구체적인 설득력을 얻는다고 보고 그 차이의 여실한 고찰을 위해 초기 시론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고자 한다.

중국에서 최초의 시론이라 할 수 있는 것은 『모시·서』이다. 『모시』는 중국 최초의 시가집인 『시경』에 대한 판본으로 그 안에 실린 서문이 『모시·서』이다.<sup>2)</sup> 이 속에 언급된 시에 대한 이론적 내용은 비교적 짧은 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양 시론의 시발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서양의 경우 시론은 고대 그리스의 시론에 뿌리를 두고 있다. 특히 플라톤(Plato)과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의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이들의 대표적인 시론서로 『이온(Ion)』, 『국가론(The Republic)』, 『시학(Poetics)』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시론을 ‘초기’라

다. 반면 ‘poetry’는 그리스어 ‘poiesis’에서 유래한 단어로 ‘making,’ 즉 제작, 산출, 생성 등의 의미를 갖는다. 어떤 가공물을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행위라는 뜻이다. 물론 여기에는 언어적 제작물이 포함된다는 점에서 ‘시’라는 번역이 가능하지만 사실상 poetry에는 음악과 그림 등의 비언어적 제작물도 포함되며 ‘시’로 번역한다고 하더라도 ‘詩’의 기원적 의미와는 거리가 있다. 제작물이라는 가공적 성격에 대한 강조가 그렇고 ‘詩’의 서정시적 성격에서 멀어진 점이 그렇다. ‘詩’와 ‘lyric’의 대응관계는 다시 따져볼 문제이긴 하지만 아무튼 poetry의 문맥에서 이해할 때 lyric은 poetry의 한 종류에 해당한다. 이처럼 ‘詩’와 ‘poetry’는 비슷하면서도 매우 다른데 이런 어원적 차이가 ‘시’라는 문화현상과 이어져 있을 것임은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

2) 『모시·서』는 「대서」와 「소서」로 나뉜다. 「대서」는 시경의 제 1편인 「관저」편 앞에 붙어 있으며 『모시』의 서문 격에 해당하며, 「소서」는 시경 각 편의 내용과 시인의 의도를 간략히 언급한 것이다. 본고에서 언급한 『모시·서』는 「대서」를 가리킨다.

고 분류한 것은 단순히 출현 시점의 의미라기보다는 각각 동양과 서양에서 문학에 관한 가장 진실한 발언으로 여겨져 왔고, 따라서 이후 문학의 형식과 내용을 결정하는 중요한 저변으로서의 역할을 해왔다는 의미에서이다. 본고는 먼저 동·서양의 시론 텍스트를 역사적 문맥에서 간략히 총괄한 후, 초기 시론의 특징을 1) 시의 기원에 관한 ‘발생론’, 2) 시의 사회적 유용성에 관한 ‘효용론’ 3) 시 짓기의 기술에 관한 ‘창작론’으로 나누어 비교 고찰해보겠다. 이를 통해 오늘날 동·서양의 문학이 만나기까지 각각의 문학이 거쳐 온 길이 어렴풋이나마 드러나기를 기대한다.

## 2. 동서양의 시론 텍스트에 대하여

중국 시론사상 시의 본질을 규정하려는 시도는 매우 일찍부터 있어 왔다. 시에 대한 정의로 『모시·서』에 언급된 ‘詩言志’설은 『尙書·堯典』에 처음 보인다. 『尙書·堯典』에서는 “시는 뜻을 말하고, 노래는 말을 길게 읊는 것이며, 소리는 읊는 것에 의존하며, 율조는 소리를 조화시킨 것이다.(詩言志, 歌永言, 聲依永, 律和聲.)”라고 하였다. 여기서 뜻이란 사상 또는 지향을 가리키는 것으로, 바로 유가의 관점에 합치되는 사상을 의미한다. 또한 『좌전·양공27년』에서도 ‘시로써 뜻을 말한다(詩以言志)’라고 하였는데, 이 역시 ‘詩言志’를 시의 본질로 인식하고 주장한 관점이다. 이처럼 중국에서 시를 논한 기록은 시대적으로 『서경』과 『좌전』의 단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춘추 말엽에는 당시에 정착된 『시경』<sup>3)</sup> 시를 중심으로 한 시론 내지 시해석이 비교적 빈번하게 나오기 시작하였다. 특히 공자의 문하에서 『시경』 시 학습을 중요시하여 시와 관련된 토론이 사제간에 진지하게 행해졌다. 공자는 시의 정의를 내리는 일은 하지 않았지만 시의 성격이나 공용에 관해서는 몇 차례 얘기한 것이 있다. 「爲政篇」에 나오는 “시 삼백 편은 한 마디로 말해서 생각에 사악함이 없다.(詩三百, 一言而蔽之, 曰思無邪.)”라는 구절은 『시경』 시 전체에 걸친 특징을 말한 것이라 할 수 있다.<sup>4)</sup> 思無邪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3) 중국 최초의 시가집인 『시경』은 西周 시기부터 춘추 초기 까지 500년간 민간·연회·제사에서 불러진 노래를 수록한 책이다.

있기는 하지만, 결국 『시경』에 수록되어 있는 시 전체는 예외 없이 眞情의 토로라는 의미이다. 이를테면 아침이나 중상 따위를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조작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뜻이다. 공자의 이 말은 『시경』의 시를 두고 한 것이기는 하지만 시는 그러해야 된다고 공자가 생각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sup>5)</sup> 『서경』에서 시작해 춘추시대에 이르기 까지 시에 대한 내용을 단편적으로 언급한 글들은 적지 않으나 이를 본격적인 시론으로 다루기에는 미흡한 면이 없지 않다.

중국에서의 본격적인 시론서는 한대에 이르러서야 출현하게 된다. 『시경』의 해설서인 『모시·서』는 한 편에 걸쳐 시에 대한 체계와 조리를 갖춘 논술을 담아내고 있어, 이전의 단편적으로 보였던 기록과는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대에는 魯詩, 齊詩, 韓詩, 毛詩 등 네 가지의 『시경』 판본이 있었다. 三家詩라 불리는 노시, 제시, 한시는 모두 한대 당시의 문자인 今文으로 기록되었다. 모시는 漢 이전의 문자인 古문으로 기록되었는데 후에 鄭玄이 여기에 傳을 붙인 후로 모시가 삼가시를 누르고 『시경』의 정전으로 군림하게 된다. 오늘날 전해지는 『시경』의 틀은 한대에 나온 모시에 의해서 비롯되었다. 『모시·서』는 시가를 현실정치와 밀접하게 연관시켜 해석하였다는 특징을 지닌다. 여기에는 ‘詩言志’, ‘溫柔敦厚說’과 같은 유가적 시가관과 ‘詩六義’, ‘四始說’과 같은 유가적 시경관을 규정짓는 중요한 견해가 표명되어 있다.

모시는 西漢初 毛亨이 해석한 시경이라는 뜻으로 그 경문은 古문으로 되어 있다. 모형은 시학 계통으로는 공자의 제자 子夏의 六傳弟子로 순자에게서 시를 배웠다고 한다. 모시의 서문인 「대·소서」의 작자에 관해서도 제설이 분분하다. 子夏가 詩序를 지었다고 하나, 陸機의 『毛詩草木鳥獸蟲魚疏』와 『後漢書』 「儒林傳」 下에는 동한 초의 경학자인 衛宏이 모시서를 지었다고 씌어져 있어 子夏가 지었다는 설은 신빙성이 희박하다. 그렇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위평이 자하 이래로 계

4) ‘思無邪’란 말은 공자가 처음 말한 것은 아니다. 이 말은 『詩經·魯頌·駉篇』에 “거짓 없이 훌륭한 말이로다.(思無邪, 思馬斯徂.)”에서 쓰인 말이다. 즉 공자는 『시경』 자체의 말을 가지고 『시경』의 특성을 언급한 것이다.

5) 이러한 작풍이 심도가 더해져서 中庸·대학·맹자 등 유가의 저술에서는 논설의 전개와 그 결론에 시경의 시를 원용하는 것이 일종의 관습같이 되어 버렸고, 맹자의 경우에는 시의 독법 내지 이해방법을 제시하기까지 하였다.

승되어 오던 『모시·서』의 뜻을 지금 전해지는 형태로 정착시킨 것으로 본다.<sup>6)</sup> 본고에서는 중국 초기의 시론을 『모시·서』를 기본으로 하여 이전에 『서경』을 비롯한 다양한 서적에 단편적으로 언급된 글들을 참조하여 중국 초기의 시론을 고찰하고자 한다.

서양의 경우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기원전 4~3세기에 걸쳐 살았던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였다. 그들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거의 동시대를 살았으나 전자는 관념주의자(idealist)로 후자는 현실주의자(realist)로 흔히 대비시키듯이 사상적으로는 다른 길을 걸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시를 직접 쓴 시인은 아니었으며 시론 또한 시인이 아니라 철학가의 입장에서 전개하였다. 물론 플라톤에 비겨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신의 철학사상에 거리를 두고 예술의 고유성을 인정하고자 하였으며 따라서 창작론에서 매우 구체적이고도 독창적인 이론을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그 중 일부는 오늘날의 관점에서는 시창작의 자유를 제한하는 교조적인 규칙으로 작용했는데,<sup>7)</sup> 이는 철학가의 시론이 갖는 한계를 의미한다고 하겠다. 서양의 경우 이처럼 초기 시론은 철학 사상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으며 각 이론가의 철학적 입장은 구체적인 시론에 이르면 매우 상이한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플라톤은 자신의 시론을 서양 최초의 예술 이론서로 불리는 『이온』과 정치철학서의 일종인 『국가론』에서 개진하고 있다.<sup>8)</sup> 전자는 플라톤의 분신이자 그의 실제 스승이기도 했던 소크라테스와 음유시인 이온 간에 예술적 능력의 원천에 관해 대화를 나누는 형식으로 구성된, 상대적으로 짧은 길이의 저술서이다. 후자는 소

6) 차주환, 『중국시론』, 22-2쪽.

7) 3일치의 법칙이 대표적이다. 이하 본문에서 상술한다.

8) 본고에서 『이온』은 웹자료 <http://classics.mit.edu/Plato/ion.html>을 참고하였으며 『국가론』과 『시학』은 Sang-sup Lee, ed., Selected English Critical Texts: with Excerpts from Classical Criticism Appended (Seoul: Shina-sa, 1982)의 발췌문을 참고하였다. 『국가론』과 『시학』은 웹자료로도 쉽게 구할 수 있다(아래 참조). 다만 상대적으로 길이가 길어 인용문의 쪽수 표기를 위해 본고에서는 프린트 자료를 기준으로 하였다. 본문에서 번역은 필자(제1저자)의 것이다.

<http://classics.mit.edu/Plato/republic.html>

<http://classics.mit.edu/Aristotle/poetics.html>

크라테스와 복수의 청자 간의 대화체 형식으로 총10권에 걸쳐 이상국가의 건설과 운영, 통치자의 덕목 등에 관해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는 책이다. 그 중 시론은 제 10권에 수록되어 있으며 주로 이상국가의 관점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플라톤은 시를 음악이나 미술 등과 딱히 구분하지 않고, 대상을 모방한다는 점에서 모두 예술이라는 일반적 범주에 포함시켰다. 그의 관념주의 철학에 비추어 볼 때 예술은 열등한 정신활동이었기에 굳이 장르를 구분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던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시론은 『시학』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시학이라는 분리된 학문의 장이 마련되었듯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시를 국가와 같은 외부적 요소와 분리하여 그 자체의 고유한 속성에서 다루었다. 현실에 대한 객관적인 관찰에 기반을 두는 그의 현실주의 철학이 대대로 예술에 종사한 가풍의 영향을 받았다는 지적이 있듯이, 『시학』에서도 저자는 시에 대해 해부학적인 시선을 들이대고 있으며 시의 본질과 창작 원리에 대해 구체적이고도 체계적인 이론을 밝히고 있다. 그런 만큼 시는 미술이나 음악과 같은 다른 예술형식과도 구분되며 대부분의 운문을 포함하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운문이면서 동시에 시 고유의 특성을 구현하는 것이어야 했다. 또한 운문 중에서도 서사시와 서정시, 희극과 비극을 구분하여 각각의 특성을 설명하기도 하였다. 즉 장르론을 처음으로 주장한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비극을 최고의 시 형식으로 여겼기 때문에 사실상 그에게 시는 비극, 보다 정확히 말하면 운문으로 쓰인 비극으로서 '비극시'를 의미했으며 『시학』은 비극이 구현하는 시의 고유성에 대한 탐구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하다.

### 3. 동서양 시론 비교

#### 1) 발생론

『모시·서』에서는 시에 대한 정의와 시의 발생과정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시는 뜻이 나아가는 것으로, 마음에 담고 있으면 뜻이 되고, 말로 표현 하면 시가 된다. 정은 마음속에서 움직이고 말로 형상화되는데, 말로 부족하기에 영탄을 하게 되고, 영탄이 부족하기에 길게 노래한다. 길게 노래해도 부족해서 자신도 모르게 손이 춤을 추고 발을 구르게 되는 것이다.(詩者, 志之所之也, 在心爲志, 發言爲詩. 情動於中而形於言, 言之不足, 故嗟歎之, 嗟歎之不足, 故永歌之, 永歌之不足, 不知手之舞之足之蹈之也.)

이 글에서 시란 뜻이 말로 나타난 것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이런 '詩言志'설은 『尙書·堯典』에 최초로 기록되어 있다.<sup>9)</sup> 뿐만 아니라 『좌전·양공27년』에서는 '시로써 뜻을 말한다(詩以言志)'라고 하였고, 『莊子·天下』편에는 "시로써 뜻을 표현한다(詩以道志)"라고 하였으며, 『荀子·儒效』편에서도 "시는 그의 뜻을 말하는 것이다(詩言是其志也)"라고 하였다. 모두 '詩言志'를 시의 본질로 인식하고 있는데, 이런 관점은 춘추시대를 거쳐 한대에 이르기까지 시에 대한 보편적인 생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志'는 사상과 감정을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 글에서는 "정이 마음에서 움직여 말로 드러난다(情發於聲)"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시가 감정의 산물임을 말한 것으로 지금의 관점에서 본다면 시는 결국 서정시를 의미한다고 하겠다. 서구에서는 서정시가 유럽의 산업혁명 이후 시대적·사상적 변화에 따라 생겨난 것과는 달리,<sup>10)</sup> 중국에서는 시가 태생적으로 서정시에서 출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더 나아가 말로서 표현하기에 부족하면 노래하게 되고, 노래로 표현하기에 부족하면 춤을 추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감정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전개되는 단계를 언급한 것으로, 詩·歌·舞가 혼합된 형태의 원초적인 예술 단계에서 그 발생의 계제를 말하고 있는데 시는 결국 그 말의 지위를 차지하는 것이다.

또한 『모시·서』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정을 드러내었으되 예의에서 멈추었다. 정을 드러내는 것은 백성의 본

9) 『尙書·堯典』, "시는 뜻을 말하고, 노래는 말을 길게 읊는 것이며, 소리는 읊는 것에 의존하며, 읊조는 소리를 조화시킨 것이다.(詩言志, 歌永言, 聲依永, 律和聲.)"

10) 손현, 김지영, 「동양과 서양의 낭만시 비교 연구 -중국의 이백과 영국의 워즈워스 시를 중심으로-」, 『외국학연구소』 제43집, 300쪽.

성이요, 예의에서 멈춘 것은 선왕의 은택 때문이다.(發乎情, 止乎禮義, 發乎情, 民之性也, 止乎禮義, 先王之澤也.)

이 글에서 시는 “정에서 시작되어 예의에서 멈춘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앞서 말한 ‘詩言志’가 선진 유가의의 규범에 합치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모시·서』가 시를 논함에 있어서 시를 일종의 자각적 정치 행위로 파악하였다는 사실이다. 즉 시 속에 정감이 반드시 유교의 예교적 규범에 일치되어야만 했다는 것이다.<sup>11)</sup> 이처럼 발생론의 관점에서 중국시를 살펴보면 시란 감정의 발로에서 시작하여 서정적인 특성을 지니지만, 여기서의 감정은 유가적 규범 안에서 허용되어야 하는 제한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발생론적인 관점에서 초기 서양 시론의 핵심은 시는 대상의 모방이라는 것이다. 이런 생각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공유했고 서양 시론 전체를 통해서 반복해서 발견되기도 한다. 여기서 모방이란 그리스어로는 ‘미메시스(mimesis)’에 해당하는데, 이 용어는 모사(copy)에서 창조(create)까지 다양한 의미의 스펙트럼을 갖는다. 예를 들어 외부의 대상을 그대로 복사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모사에 가깝다면, 모방의 대상이 시인의 시선에 의해 굴절된다고 본다면 그 때의 모방은 창조에 가깝다. 실제로 ‘미메시스’는 이론가들에 따라 모사에서 창조까지 다양한 뉘앙스를 띄며 사용되었고 그에 따라 이론가의 색깔이 정해진다고 할 수 있다.

플라톤은 모사론적인 의미에서 예술은 대상의 모방이라고 정의했다. 그의 모방론은 그의 관념주의 철학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플라톤에 따르면 신이 창조한 세계는 관념의 형태로 존재하며, 인간이 세계 속에서 지각하는 구체적인 사물들은 이 이상적인 형태의 관념이 감각의 옷을 입고 어렴풋이 재현된 것이다. 시인 혹은 예술가는 관념을 모방하여 재현된 감각의 현상세계를 다시 모방하는 자로, 말하자면 진리와는 한참 동떨어져 있다. 『국가론』에서 플라톤은 그 관계를 침대의 예를 들어 설명한다.

세계에는 세 종류의 침대가 있다. 첫째, 자연에 존재하는 것으로 신에

11) 이병한, 『중국고전시학의 이해』, 12쪽.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어느 누구도 (침대라는 순수한 관념으로서의) 그것을 만들어 낼 수는 없다. [...] 두 번째 종류는 목수에 의해 만들어진 침대이다. [...] 화가의 침대는 두 번째 침대를 모방한 세 번째 침대에 해당한다. [...] 그러므로 화가의 모방은 실재에서 세 번이나 동떨어진 것이다.<sup>12)</sup>

플라톤은 예술가란 마치 거울에 얼굴을 비추듯이 말이나 그림 혹은 음악을 빌어 외부의 사물을 그대로 흉내 내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 목수는 그나마 관념을 흉내 내 침대를 만든다면 화가는 목수의 침대를 흉내 내는 자이므로 진리로부터 한 단계 더 떨어져 있다. 세계의 실재는 순수한 관념의 형태로 이미 주어져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하다보니 말을 통해 우리의 머릿속에 자연의 형상을 떠오르게 하는 시는 관념과는 한참 동떨어진 것이 되는 것이다. 플라톤은 진리의 객관적 절대성에 대한 서양 고유의 이성주의적 신념에 근거할 때 도출될 수 있는 가장 원형적인 시론을 전개하고 있는 셈이다.

플라톤의 모방론은 『이온』에서는 영감론(靈感論)이라는 극단적 형태로 나타난다. 이에 따르면 시인이 말할 때 그는 정신을 잃고 신적인 광기에 사로잡혀 있다. 시인은 자신의 이성적인 능력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로 부터 영감을 받아 다른 사람의 말을 자기 목소리로 대신 전달하는 사람이다.

시인은 가볍고 날개달리고 신령한 존재이다. 그는 영감을 받아 미쳐서 정신이 더 이상 그의 몸에 붙어 있지 않을 때까지 아무 창작 능력이 없다. 시인이 이 상태에 도달하지 못하는 한 그는 무력하고 신의 신탁을 말할 수 없다.<sup>13)</sup>

시인의 말에는 뭔지 모르케 신묘한 데가 있긴 하다. 그런데 그 사실은 시인이 자신의 이성과 의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에 사로잡혀 다른 사람의 말을 전달하기 위해 자신의 목소리를 빌려주고 있음을 의미한다. 모방이 극단화하여 시

12) Plato, Sangsup Lee ed. "The Republic," *Selected English Critical Texts: with Excerpts from Classical Criticism Appended*, Seoul: Shina-sa, 1982, 854-855쪽.

13) Plato, Ion, <http://classics.mit.edu/Plato/ion.html>.

인은 남이 하는 것을 따라하다 못해 남에게 전적으로 자신의 팔다리와 목소리까지 조종 받는다는 것이다. 이런 모방적 영감론은 훗날 창조적 영감론으로 변모하여 19세기 유럽 낭만주의의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런 변화는 논리상 충분히 가능하지만 플라톤의 의도를 고려한다면 아이러니컬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플라톤에게는 시인이 이성을 잃고 영감에 사로잡힌다는 사실이야말로 시인을 이상국가에서 추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였다. 모방론이 고대 그리스와 19세기 근대 유럽 사이에서 모사론과 창조론의 양극단을 오가고 있는 셈이다. 이와 같이 문학이란 객관적으로 주어진 외부의 진리를 모방하는 것이라는 생각은 플라톤에서 시작되었고, 이는 향후 서양 시론이 어떤 식으로든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화두가 되었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도 시는 무엇보다 대상을 모방하는데서 유래한다. 그런데 그는 시인이 대상을 모방하는 것은 다른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모방이 즐겁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모방은 인간의 본능이다.

시 창작은 인간본성에 뿌리박은 두 가지 요인에 기한다. 모방 본능은 태초부터 사람에게 내재해 있다. 사람은 가장 모방적인 점에서 동물과 구별되며 모방을 통하여 최초의 지식을 얻는다. 또한 누구나 본능적으로 모방물에 대해 즐거움을 느낀다. [. . .] 미친한 동물이나 시체도 직접 보면 역겹지만 가장 정확하게 재현된 상태로 볼 때는 즐거움을 느낀다.<sup>14)</sup>

사람들은 징그러운 동물이나 시체를 직접 보기는 꺼리지만 그림으로 보는 것은 즐긴다. 공포 영화를 일부러 찾아서 보듯이 참혹한 광경도 재현된 대상이 될 때는 즐거움을 안긴다. 감각의 동일한 재현이라는 점에서 플라톤이 모사의 의미로 사용한 모방이 예술의 특수한 성격에 의해 대상의 직접적이고 감각적인 자극을 걸러내는 장치로 설명되고 있는 것이다. 예술을 실제와 구분하는 예술 고유의 특수성에 대한 이런 언급은 이후 '미적 거리(aesthetic distance)'라는 형식주의 개념으로 발전하였다. 예술의 고유성은 대상을 실재와는 다른 각도에서 관조하게 하는 특수한 형식적 요소에 있다는 것이다.

14) Plato, Sangsup Lee ed, "Poetics," *Selected English Critical Texts: with Excerpts from Classical Criticism Appended*, Seoul: Shina-sa, 1982, 810쪽.

이런 논리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시가 모방하는 대상은 인간의 행위(action)라고 주장한다. 시는 꽃이나 침대가 아니라 행위를 모방하는 점에서 고유하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세계는 플라톤이 주장하듯이 관념의 형태로 이미 완전하게 존재하는 것(being)이 아니라 완성 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것(becoming)이다.<sup>15)</sup> 진리는 어딘가로 부터 세계에 던져진 것이 아니라 세계가 스스로를 완성하는 과정에서 내적 원리로서 발현된다는 것이다. 인간의 경우 삶의 내적 원리는 행위를 통해 드러난다. 행위란 삶이 어떤 목표를 향해 일정한 속도와 크기로 움직여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시는 삶이 스스로를 완성하는 원리로서의 이 행위를 모방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서양에서 시는 발생론적인 측면에서 모방론을 중요한 특징으로 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우 모방론이라고 부르기에 부적절함에도 그는 '모방'이라는 단어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이는 후자의 의견처럼 자신의 시론이 스승인 플라톤의 것과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기 위한 의도적인 것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sup>16)</sup> 그만큼 서양 시론에서 모방론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을 반증하는 셈이다.

이상에서 발생론의 관점으로 동·서양 시론을 살펴보았다. 중국시의 경우 시는 사상과 감정에서 발생하는 것이라는 '詩言志'설이 보편적인 관점이었고, 이 사상과 감정은 유가적인 예법의 한도 내에서 허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서양에서 시는 대상의 모방이라는 '모방론'이 주된 특징이며, 플라톤은 이를 영감론으로 아리스토텔레스는 내부구조론으로 풀어내었음을 알 수 있다. 전자가 시인 내부에서 발생하는 사상과 감정에 방점을 둔다면, 후자의 경우 외부 대상에 깃든 진리를 드러내는데 방점을 둔다는 점에서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 2) 효용론

앞서 설명했듯이 중국시는 감정의 토로에서 출발하였으나 유가의 예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가능하였다. 『모시·서』에는 시의 효용성을 유가적 관점에서 다음

15) 램프레히트, 김태길 역, 『서양 철학사』, 을유문화사, 2008년, 89-124쪽.

16) 이상섭, 『문학이론의 역사적 전개』, 연세대학교 출판부, 1981, 20쪽.

과 같이 전개하였다.

「관저」는 후비의 덕을 노래하였고, 국풍의 시작이며, 천하를 교화하고 부부를 바로잡는데 쓰였다. 때문에 이 노래를 마을 사람들에게 부르게 하고,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부르게 하였다. 風은 풍자하는 것이며 가르치는 것이다. 풍자함으로써 감동시키고 가르침으로써 감화시킨다.(關雎, 后妃之德也. 風之始也, 所以風天下而正夫婦也. 故用之鄉人焉, 用之邦國焉. 風, 風也 教也, 風以動之, 教以化之.)

이 글은 『모시·서』의 처음 구절이다. 국풍·대아·소아·송으로 구성된 총 305편 시 가운데 「관저」는 첫 번째 작품이다. “구옥구옥 물수리 강가에서 우는데, 아리따운 아가씨는 좋은 군자의 배필이라네.(關關雎鳩, 在河之洲. 窈窕淑女, 君子好逑.)”로 시작되는 「관저」시에 대하여 『모시·서』에서는 후비의 덕을 노래한 것으로 천하를 교화하고 부부 관계를 바로 잡는데 사용되었다고 언급하였다.<sup>17)</sup> 또한 국풍의 ‘풍’은 풍자하고 가르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 작가는 마을 사람들 더 나가서는 여러 지방 사람들에게 부르게 하여 이들을 교화하려는 목적을 지닌다고 하였다. 이는 『시경』의 시 뿐만 아니라 중국시의 효용적 가치를 언급한 것이라 하겠다. 즉 시로써 백성들을 감화시킴으로써 천하를 교화한다는 유가의 政教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은 시와 음악을 통한 시의 효용성을 말한 내용이다.

情은 소리로 드러나는데, 소리가 五聲의 궁조를 이룬 것을 음이라고 한다. 치세의 음은 편안하면서 즐거우니 그 정치가 평화스러워서이고, 난세의 음은 원망하면서도 성내고 있으니 그 정치가 어지러워져서이다. 망국의 음은 슬프면서도 근심에 잠겨 있으니 그 백성이 고달파서이다. 그러므로 정치의 득실을 바로 잡고, 천자를 감동시키고, 귀신을 감화하는 것으로는 시 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선왕은 시로써 부부의 도를 잘 지키게 하고 효도하고 공경하게 하였으며 인륜을 두텁게 하고 교화를 아름답게 하였으

17) 현대에는 『시경』의 시를 문학으로서가 아니라 정교와 도덕의 준칙이 되는 경전을 받드는 입장이었으므로 시 해석에 무리가 있는 부분이 많았다. 한 젊은 남자가 아름다운 여인을 그리며 부른 사랑의 노래인 「관저」를 후비의 덕을 노래했다고 한 것도 그 예이다.

며, 풍속을 바꾸었다.(情發於聲, 聲成文謂之音. 治世之音, 安以樂, 其政和, 亂世之音, 怨以怒, 其政乖, 亡國之音, 哀以思, 其民困, 故正得失, 動天地, 感鬼神, 莫近於詩. 先王以是經夫婦, 成孝敬, 厚人倫, 美教化, 移風俗.)

이 글은 음악과 정교와의 관계를 말하고 있다. 『시경』의 시는 노래의 가사였기 때문에 시와 음악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시를 노래한 음악은 그 소리가 어떠한가에 따라 그 나라의 정치득실을 알 수 있다고 하였으니, 이는 음악과 정교와의 긴밀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백성들이 부르는 음악의 곡조를 통해서 치세의 음, 난세의 음, 망국의 음을 알 수 있으니, 위정자의 입장에서는 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실로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정치의 상황에 따라 情志의 방향이 변동하게 되리라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일이 아니다. 따라서 정치의 득실을 바로잡아 나가고 천지를 감동시키는 데 있어 시를 활용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어서 선왕이 시로써 실천했던 사례를 “부부의 도를 잘 지키게 하고, 인륜을 두텁게 하고, 풍속을 바꾸었다”고 예를 들었다. 이는 시의 政教면에서의 공능을 확대시켜 시의 실용적 가치를 극도로 높인 것이다. 공자가 시경의 교육적 기능과 정치적 효용을 강조한 이래 『모시·서』에서도 문학적 성격보다 교육적 기능과 윤리적·정치적 효용성 등이 더 중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효용적인 관점에서 중국시는 유가의 정치와 교육적인 면을 확장시키는 데 유용한 도구로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서구에서는 발생론에서의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간의 대립이 효용론에서도 발견된다. 시인이 이성을 잃고 헛소리를 하는 사람이라면 플라톤의 이상국가에서 시인은 추방되어 마땅하다. 플라톤은 『국가론』에서 동굴의 비유를 통해 이 주장을 보다 인상 깊게 설파한다. 현상세계는 관념을 가리고 있다는 점에서 현상계의 우리는 동굴에 갇힌 것과 같다. 동굴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불빛에 의해 만들어진 우리의 그림자뿐이다. 동굴안의 사람은 자신의 그림자를 보고 그것이 세계의 전부라고 믿고 있는 것이다. 이상국가의 현자라면 동굴 안의 사람을 이끌고 나와 태양 아래 드러난 진리, 즉 관념이라는 순수진리를 보여주어야 한다. 그런데 시인은 도리어 사람들을 동굴 안에 가두고 그들로 하여금 자기 그림자를 보고 춤추게 한다.

플라톤은 “모방적 예술은 열등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열등한 자식이다”<sup>18)</sup>라고 주장 없이 말한다.

플라톤은 시를 허용하기 위해서는 아주 엄격한 조건을 내건다.

이상국가에서 허용될 수 있 수 있는 유일한 시는 신에게 바치는 송시나 훌륭한 사람을 기리는 찬가여야만 한다. 이 제한을 벗어나서 감미로운 서정시나 서사시를 허용하는 경우 법과 최고의 선으로 여겨지는 이성의 원칙 대신에 쾌락과 고통이 우리의 지배자가 될 것이다.<sup>19)</sup>

그리스 시대 최고의 시인은 서사시인인 호머(Homer)였다. 위 인용문은 당시 그리스인들이면 누구나 좋아했던 그의 서사시가 이상국가에서는 금지되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다. 시민을 감정적으로 흔드는 시는 사회적 법과 이성을 호도하는 것이다. 오직 법과 이성의 수호자로서 사회적으로 인정된 가치를 함양함으로써 이상국가의 건설과 경영에 도움이 되는 한에서만 예술은 허용되는 것이다. 사회적 이념에 봉사하는 선전문학 이외 예술의 효용성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주장은 오늘날 우리들의 시각에는 매우 몰상식하고 비민주적인 것으로 비친다. 하지만 여전히 남아 있는 검열주의적 태도, 즉 예술이 우리의 건전한 상식을 ‘물들인다’는 생각을 하는 한 그 뿌리는 플라톤의 효용론에 닿아 있는 셈이다.

반면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시의 효용은 먼저 모방의 즐거움에서 찾을 수 있다. 시인의 손을 거쳐 재현된 세상은 아무리 비루해도 바라보고 즐길 거리가 된다. 모방이 주는 즐거움은 또한 인지와 창조의 즐거움이기도 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어쩌다 묘사된 것이 우리가 전에 본 적이 없는 것”인 경우를 상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 즐거움을 주는 것은 “그것이 어떤 것의 모방이라는 사실이 아니라 어떤 결단 혹은 색깔 입히기와 같은 그런 [시적] 작인(cause)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한다.<sup>20)</sup> 즉 시를 통해 배움을 얻는 것은 이미 주어진 진리를 복사하듯 암기한

18) Plato, Sangsup Lee ed, “The Republic,” *Selected English Critical Texts: with Excerpts from Classical Criticism Appended*, Seoul: Shina-sa, 1982, 862쪽.

19) 위의 책, 867쪽.

20) Aristotle, Sangsup Lee ed, “Poetics,” *Selected English Critical Texts: with Excerpts from Classical Criticism Appended*, Seoul: Shina-sa, 1982, 810쪽.

다는 의미가 아니라 세계가 작동하는 원리를 깨우친다는 뜻이다. 시는 그렇게 세계에 어떤 작인을 가동시키는 행위이고, 전에 본 적이 없는 경우에도 어떤 대상으로 모방적 유추가 가능한 것은 대상의 모방이 아니라 대상의 원리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아리스토텔레스는 시가 세계를 보다 보편적인 차원에서 드러내기 때문에 진리에 더 가깝다고 말한다.

시인의 기능이란 실제 일어난 것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날 수 있는 종류의 것, 다시 말해 상황상 개연적이거나 필연적이기 때문에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종류의 것을 묘사하는 것이다. 역사가와 시인의 차이는 전자는 산문으로 쓰고 후자는 운문으로 쓰는 것이 아니다.[...] 그 차이는 전자는 이미 일어난 것을 말하고 후자는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 있다. 이런 이유로 시는 역사보다 더 철학적이며 주목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다. 시는 보편적 진리를 다룬다면 역사는 구체적 진리를 다루기 때문이다.<sup>21)</sup>

시는 실제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서의 '가능성(possibility)'이 아니라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서의 '개연성(probability)'을 다룬다. 사실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사실의 가능성에 문을 열어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시가 다루는 세계는 보다 보편적이고 따라서 보다 철학적이며 이는 보다 진리에 가깝다는 뜻이 된다. 사실에 한정된 대표적인 지적 활동이 역사다. 역사와 겨루었을 때 시는 확실히 더 철학적이다.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시에서는 개연적인 불가능이 개연적이지 않은 가능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 이런 예술적 특징을 잘 보여주는 것이 뿔 달린 암시슴의 예다.<sup>22)</sup> 암시슴은 뿔이 없지만 뿔 달린 암시슴을 그린다고 해서 그런 사실적인 오류로 예술가를 비난할 수는 없다. 우선 아름답고 또한 충분히 개연적이기 때문에 예술적 진실에는 부합하는 것이다. 비록 자연에는 없다 할지라도 있을 수 있는 것으로서 자연을 보다 높은 차원으로 이끌어 가는 점에서 예술의 효용성을 부인할 수 없다.

21) 위의 책, 818쪽.

22) 위의 책, 845쪽.

이상에서 효용론적 측면에서 동·서양의 초기 시론을 살펴보았다. 중국시는 유가적 관점에서 백성들을 교화하는 교육적 역할을 담당하였고, 위정자들은 시를 통해 백성을 살피고 이끌어 가는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서구의 경우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무용론과 유용론으로 의견이 나뉘나 공통적으로 즐거움을 시의 효용적 요소로 언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양의 시론이 정치와 교육적 측면을 강조한다면 서양의 경우 즐거움이 각각 시를 추방하거나 숭상해야 하는 이유가 되는 셈이다.

### 3) 창작론

『모시·서』에는 시의 창작원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시경에는 六義가 있다. 첫째는 風이며, 둘째는 賦이며, 셋째는 比이며, 넷째는 興이며, 다섯째가 雅이며, 여섯째가 頌이다. 윗사람은 풍으로서 아랫사람을 교화하고, 아랫사람은 풍으로써 윗사람을 풍자하는데 문장을 위주로 하여 완곡하게 간언하고 충고하여, 말한 사람은 죄가 없고 그것을 듣는 자는 경계로 삼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풍이라고 한다. 왕도가 쇠해지고 예의가 행해지지 않고 정치의 교화가 없어지고, 나라마다 정치를 달리하고 집집마다 풍속을 달리하면서 變風과 變雅가 지어졌다. 왕실의 사관이 정치득실의 자취를 밝히 알아서 인륜이 행해지지 않음을 아파하고, 형벌의 가혹함을 슬퍼하면서 자신의 마음속 정감을 노래하여, 그 윗사람을 풍자하고, 사태의 변화를 알리고 옛 풍속을 그리워하고 있는 노래들이다. 그러므로 變風은 정감을 드러내었으되 예의에서 멈추었다. 정감을 드러내는 것은 백성의 본성이요, 예의에서 멈춘 것은 선왕의 은택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한 나라의 일을 말하고 사방의 풍속을 표현하는 것을 雅라고 한다. 이는 바르다는 뜻으로 왕실 정치가 흥성하고 쇠퇴하게 된 연유를 말한 노래이다. 정치의 일은 크고 작음이 있으므로 小雅가 있고 大雅가 있다. 頌은 성대한 덕의 모습을 찬미하여서 공적을 이루었음을 神明에게 아뢰는 노래이다. 이것들을 四始라 하니 시의 이치가 지극한 경지에 이르렀다. (故詩有六義焉, 一曰風, 二曰賦, 三曰比, 四曰興, 五曰雅, 六曰頌. 上以風化下, 下以風刺上, 主文而譎諫, 言之者無罪, 聞之者足以戒. 故曰風. 至于王道衰, 禮義廢, 政教失, 國異政, 家殊俗, 而變風變雅作矣. 國史明乎得失之



迹, 傷人倫之廢, 哀刑政之苛, 吟詠情性, 以風其上. 達於事變而懷其舊俗者也. 故變風, 發乎情, 止乎禮義, 發乎情, 民之性也, 止乎禮義, 先王之澤也. 是以一國之事 繫一人之本, 謂之風, 言天下之事, 形四方之風, 謂之雅. 雅者, 正也, 言王政之所由廢興也. 政有小大, 故有小雅焉, 有大雅焉. 頌者, 美盛德之形容, 以其成功告於神明者也. 是謂四始, 詩之至也)

이 글에서 언급한 六義 즉 風·雅·頌·賦·比·興은 여섯 가지의 시 창작원리를 말한다. 시의 육의를 다시 구분하면 풍·아·송은 시의 종류로, 부·비·흥은 시의 창작수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시의 종류로 언급한 風雅頌을 시의 三經이라 하며, 시의 수법으로 언급한 賦比興을 三緯라 한다.<sup>23)</sup> 風은 여러 제후국에서 유행했던 민요의 가사이며, 雅는 향연이나 會朝 때에 연주하던 악곡의 가사로써 다시 政事의 대소에 따라 대아와 소아로 나뉘고, 頌은 조상의 공덕을 칭송한 내용의 祭歌들이다. 『시경』에는 모두 305편의 시가 실려 있으며 다시 「국풍」 160편, 「소아」 74편, 「대아」 31편, 「송」 40편으로 크게 나뉘어져 있다. 시의 수법으로서 比는 비유로써 직유법과 같은 작시법이며, 賦는 직서법이며,<sup>24)</sup> 興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설이 있으나 결국 일종의 은유법이라고 할 수 있다.<sup>25)</sup>

『모시·서』에는 육의뿐 아니라 變風과 變雅, 四始說 등이 언급되어 있어 正變의 관념, 編詩의 요강 등을 알아 볼 수 있다. 변풍과 변아는 풍과 아를 정변으로 구분한 것이다. 즉 노래한 내용이 어떠한가에 따른 것으로 실제 국풍과 소아·대아에 걸쳐 정과 변의 차례로 시를 편성해 놓았는데, 여기에는 유가의 정치관이 많이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사시설은 시경의 편차에 대한 언급으로 시경은 풍·소아·대아·송 순으로 시작되는데, 「關雎」를 국풍의 시작으로, 「鹿鳴」을 소아의 시작으로, 「文王」을 대아의 시작으로, 「清廟」를 송의 시작으로 삼았다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모시·서』에는 시의 종류, 작시 방법, 시의 구성, 내용에 대한

23) 차주환, 『중국시론』, 25쪽.

24) 賦는 直敘法이어서 가장 평범한 것 같으나 서술의 순서나 용어의 선택 등에 意象을 집결시키는데 따라 시의 수법으로서의 특이성을 갖게 된다.

25) 興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으나 결국 일종이 은유법으로, 때로는 比와 혼동되기도 한다. 또 때로는 興의 수법에 따른 시는 시인의 眞意를 파악하기 어려워 각종의 상이한 해설을 끌어내게 만들기도 한다.

평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어, 중국 초기의 시론에서는 이미 창작론에 대하여 비교적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서양의 경우 플라톤에게 시는 일종의 사주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써야하는가에 대해 플라톤이 할 말이 많았을 리가 없다. 시인이 영감에 사로잡혀 시를 쓴다는 것은 시인에겐 별다른 재주가 필요하지 않다는 뜻이 된다. 이런 논리에서 자연스럽게 시는 형식보다는 내용이 중요해진다. 시의 내용은 어떤 형식에 담든지 변함이 없다. 같은 내용을 운문으로 전달하든 산문으로 전달하든 차이가 없다. 오히려 운문의 운율은 즐거움을 주는데 이는 국가의 건전한 윤리를 위해서는 통제되어야 하며 혹시라도 시의 운율이 허용된다면 그것은 즐거움과 함께 사회적 이익을 가져오는 조건 하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플라톤은 시의 내용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 예를 들어 시에서는 나쁜 본을 보여주어서는 안 되며 저급한 인물을 다루어서도 안 된다. 각 인물은 신분에 맞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 높은 신분의 인물이 나쁜 사람으로 묘사되어서도 안 되며 호머의 서사시에서처럼 영웅이 자기 신세를 한탄하는 장면이 나와서도 안 된다. 시인은 50세 이상이어야 하며 그때까지 행동으로 사회에 모범을 보인 자여야 한다.<sup>26)</sup> 물론 고리타분한 노인네의 잔소리 같은 이런 논리가 당시에 그대로 먹혀들었을 리는 없다. 플라톤은 시와 철학을 두고 항간에 떠도는 앞뒤가 파악했다는 식의 철학자에 대한 비아냥거림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한다.<sup>27)</sup> 실제로 시의 매력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철학자이기도 하다. 하지만 시의 매력을 알기에 철학자 플라톤은 더욱더 이상국가에서 그 사상적 건전성을 입증하기 전에는 시를 들일 수 없었던 것이다.

반면 시를 행위의 모방으로 정의한 아리스토텔레스에게 (고정되지 않은) 행위를 어떻게 모방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그에게 행위의 모방은 곧 플롯을 만들어내는 일이었다. 플롯이란 사건의 질서 있는 배열이라는 의미로 시를 쓴

26) 평론가 할(Vernon Hall)이 정리한 내용을 참고하였다. Vernon Hall, *A Short History of Literary Criticism*, London: The Merlin Press, 1963, 12-15쪽.

27) Plato, Sangsup Lee ed, "The Republic," *Selected English Critical Texts: with Excerpts from Classical Criticism Appended*, Seoul: Shina-sa, 1982, 867쪽.

다는 것은 행위를 질서 있게 배열한다는 의미가 된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시가 모방하는 행위는 “완전하고 전체적이며 일정한 크기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전체’란 처음과 중간과 끝이 있다는 뜻이다. 즉 행위의 모방이란 복잡다단한 삶의 여러 국면을 의미 있게 엮어 하나의 전체로 조화롭게 통일시키는 것이고, 그렇게 부분을 전체와 통일시키는 기술이 플롯이라는 것이다. 전체에 대한 이 당연한 설명을 통해 아리스토텔레스는 서로 무관해 보이는 것에 의미 있는 질서를 부여하는 능력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즉 “시인은 운문이 아니라 플롯을 만드는 자여야 한다”<sup>28)</sup>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롯이 전체의 효과를 내는데 필요한 창작법을 조목조목 구술한다. 비극은 한사람에게 일어난다는 이유로 전체라고 하지 않고, 한 가지 사건을 바꾸면 전체가 바뀌는 것이어야 전체라고 할 수 있다. 길이는 하루 내로 한정하고, 인물은 훌륭하고도 일관적이어야 하며, 행복과 불행의 반전(reversal)이 있어야 하며, 그를 통해 삶에 대한 인식(recognition)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 등이다.<sup>29)</sup> 말하자면 플롯을 통해 그 자체로 완벽한 하나의 세계 혹은 구조물을 만들어 내는 것이 곧 시를 짓는 일인 것이다.

이런 창작 원리에서 귀결한 삼일치의 법칙은 최소한 16세기 셰익스피어 이전까지는 시의 강력한 형식적 규율로 작동하였다. 오랜 세월을 걸쳐 서양에서 시는 공연을 위한 시, 즉 극시를 의미했는데 3일치의 법칙이란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공연의 개연성을 높이기 위해 하나의 작품은 하루의 시간 내에, 한 장소에서, 하나의 행위만 드러냄으로써 통일성을 구현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는 플라톤에게서도 동일하게 발견되듯이 서양 초기 시론에 두드러진 규범화의 경향을 보여주는 것으로, 서양 시론에서 규범화는 오늘날 강조되는 자유로운 상상력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중요한 시적 기반이었음을 반증한다.

창작론의 관점에서 중국 초기 시론에서는 六義, 四始, 變風, 變雅 등의 언급을 통해 시의 종류, 창작수법, 편시의 요강, 정변관념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인식하

28) Aristotle, Sangsup Lee ed. “Poetics,” *Selected English Critical Texts: with Excerpts from Classical Criticism Appended*, Seoul: Shina-sa, 1982, 815쪽.

29) 위의 책 813-816쪽.

였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서구 초기 시론에서 플라톤은 시의 형식적 특성을 인정하지 않고 다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내용을 강조하였고,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시의 창작은 사건을 질서 있게 배열하는, 즉 잘 짜여진 플롯을 만드는 직업으로 여겨졌으며, 이는 창작법에서 삼일치의 법칙을 낳았음을 알 수 있다.

#### 4. 결론

오늘날 시는 개인 혹은 지역 간의 차이를 넘어 세계 보편적인 가치와 이념을 추구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시는 문화의 지역적인 특성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보편성 속에 녹아있는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이해한다면 시에 대한 이해는 더욱 깊어질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한자어 중심의 동양 문화권과 영어 중심의 서양 문화권의 초기 시론을 중심으로 이들 시론의 특징을 고찰하였다. 중국에서 최초의 시론서라 할 수 있는 것은 한대에 나온 『모시·서』이며, 서양 문화권에서 시론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처음 유래한다. 본고에서는 중국의 『모시·서』와 고대 그리스의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시론을 발생론·효용론·창작론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중국에서는 BC 500년경에 이미 『시경』이라는 최초의 시가집이 나왔고, 춘추 말엽부터 『시경』 시를 중심으로 한 시론이나 시해석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는 중국시는 초기부터 시라는 양식이 분명히 존재하였고, 비록 유가의 정교관에 의해 왜곡되기는 하였어도 시의 의미와 가치가 크게 인정받았다는 것을 말해준다. 한대에 나온 『모시·서』를 통해 살펴본 중국 초기의 시론은 다음과 같다: 중국시는 발생론의 관점에서 시가 감정에서 나왔다는 ‘詩言志’설이 보편적인 인식이었는데, 이러한 감정과 사상은 유가적 전통의 구속을 받았다. 따라서 시는 유가의 정치적 교육적 효용을 부각시키는 도구로 사용되어 아직 독자적인 문학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 다만 시가 어떻게 창작되어야 하는 지에 대하여는 비교적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서양의 경우에는 철학자인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시에 대한 언급이 시론의 원류였다. 플라톤은 이상주의자로서 우주의 본질은 관념에 있는데 문학은 이 관념에서 두 단계나 떨어진 모방이라 주장하며 시의 가치를 낮게 보았다. 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주의자로서 세계는 완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완성 되어가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시가 대상을 모방하는 것이기는 하나 세계를 보편적인 차원으로 드러낸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여겼다. 플라톤은 시가 무용한 것이라고 여겼으나 아리스토텔레스는 시의 효용을 모방의 즐거움으로 보았다. 창작론의 관점에서 플라톤은 시의 형식을 인정하지 않은 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시가 행위의 모방이지만 이는 짜임새 있는 플롯을 통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시론이란 시의 원리를 논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고대 중국과 서양의 초기 시론은 매우 다른 모습을 보인다. 중국의 경우 시는 초기부터 서정시였다면 서양의 경우는 비극이 최고의 시 형식이었으며, 시의 효용에 관한 서양의 깊은 고민은 동양과는 분명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이런 차이는 깊이 들어가자면 세계의 실재에 대한 동·서양의 다른 철학에 맥이 닿아 있겠지만, 시론의 차원에서 분석하자면 중국의 경우 초기 시론이 『시경』의 해설서였던 『모시·서』에 기록되어 있다면, 서양의 경우는 철학적 관점에서 시를 논하는 형태로 전개된 때문으로 짐작해볼 수 있다. 즉 시의 독립성을 인정하는데 동·서양이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고 하겠다. 반면 동양의 시론이 시대적으로 일관된 양상을 보인다면, 서양의 경우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로 대표되는 서로 다른 입장이 공방하는 양상을 보이는 특징이 있다. 서양의 경우 그런 공방이 이어져 오늘날은 서정시를 강조하고 예술지상주의라고 할 만큼 시의 효용성을 최대한으로 인정하는 점에서 발생 초기부터 서정적 특징이 나타난 동양시론을 상당히 닮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오늘날 설득력을 얻고 있는 시의 보편성이 서양에 의해 기획되었다면 그 이론적 원류는 동양 시론에서 찾을 수 있는 셈이다. 결국 본 연구를 통해 동양과 서양에서 초기시론이 상당히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었음을 확인하는 한편, 각 시론에 내재된 특징이 시대에 따라 달리 현상하면서 오늘날 세계문학이라는 보편적 범주에서 동·서양이 만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參考文獻〉

- 馬瑞辰, 『詩經傳箋通釋』, 北京, 中華書局, 1989.
- 차주환, 『중국시론』,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89.
- 이병한 편저, 『중국 고전시학의 이해』, 서울, 문학과지성사, 1992.
- 김학주, 이동향, 김영구, 『중국문학사』 1, 서울,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1999.
- 김학주, 『漢大의 文人과 시』, 서울, 명문당, 2002.
- 김시준, 『모시연구』, 서울, 瑞麟文化史, 1981.
- 최일의, 『중국시론의 해석과 전망』, 서울, 신아사, 2012.
- 오태석, 『중국시의 문예심미적 지형』, 서울, 글누림, 2014.
- 김준오, 『시론』, 서울, 三知院, 1996.
- 이승훈, 『시론』, 서울, 고려원, 1985.
- 이상섭, 『문학이론의 역사적 전개』,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1981.
- 이재호, 이명섭 역, 『서양문학비평사』, 서울, 탐구당, 2003.
- 스털링 P. 램프레히트, 김태길 역, 『서양 철학사』, 서울, 을유문화사, 2008.
- 손현, 김지영, 『동양과 서양의 낭만시 비교 연구 -중국의 이백과 영국의 워즈워스 시를 중심으로-』, 『외국학연구소』 제43집, 2018, 3.
- Aristotle, Sang-sup Lee, ed., "Poetics," *Selected English Critical Texts: with Excerpts from Classical Criticism Appended*, Seoul: Shina-sa, 1982: 852-68.
- Gilbert, Allan H., ed., *Literary Criticism: Plato to Dryden*, Detroit: Wayne State University Press, 1962.
- Hall, Vernon, *A Short History of Literary Criticism*, London: The Merlin Press, 1963.
- Lamprecht, Sterling Power, *Our Philosophical Traditions: A Brief History of Philosophy in Western Civilization*, New York: Appleton-Century-Crofts, 1955.
- Lee, Sang-sup, ed., *Selected English Critical Texts: with Excerpts from Classical Criticism Appended*, Seoul: Shina-sa, 1982.
- Plato, Benjamin Jowett, trans., *Ion*, <http://classics.mit.edu/Plato/ion.html>
- \_\_\_\_\_, Sang-sup Lee, ed., "The Republic," *Selected English Critical Texts: with Excerpts from Classical Criticism Appended*, Seoul: Shina-sa, 1982: 852-68.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f Early Poetics of the East and the West:  
Focused on Maoshixu in China and Plato's and Aristotle's Thoughts on Poetry  
in Ancient Greece

Sohn, Hyun / Kim, Ji-Young

This essay is a comparative study of early poetics of the East and the West. Poetry here, as defined at that time in both cultures, refers to the rhythmic writing in opposition to the prosaic, including lyric most of all in the East and lyric and epic and drama as well in the West.

The earlier poetics of China in the East can be found in 『Maoshixu』, which says crucially: “Poetry is a thing written as led by the mind. What is in the mind is emotion and what is expressed is poetry.” This view of poetry as “expressed emotion” has strongly influenced the later Chinese poetry even up to today. Chinese poetics puts special emphasis on figures of speech as a means to convey emotion effectively. The earlier poetics of the West can be found in *Ion* and *The Republic* by Plato and *Poetics* by Aristotle in the ancient Greece. The core theory common to both of them is that poetry is an imitation of objects. Plato's and Aristotle's discussions of poetry are dependent on their philosophies, idealism and realism each. For example, whereas Plato explained poetry to be a sensory imitation of sensory objects and so triple-removed from the true ideality, Aristotle defined it as an imitation of action, which is always true to life. For Aristotle, the best imitation should be of heroic action and so tragedy is the supreme form of poetry. His theories of composition are very detailed and specific, a very original and unique case in the West. Thus we aim to compare the Eastern and the Western poetics in the earlier age in view of theories of origin, utility, and composition.

Key words: Maoshixu, Plato, Aristotle, origin, utility, composition

이 논문은 2018년 7월 16일에 접수되어 2018년 8월 6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18년 8월 17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